

지역 소식통

완주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천경옥)가 여성의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 여성의 리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2021년 완·소·녀(완주의 소중한 여성들)의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총 5회차에 걸쳐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19일 첫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역 여성들의 역할과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첫 교육에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박민정 부장이 강사로 초빙돼 '나는 소비자교육 전문가다'를 주제로 여성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설명했다.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들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지급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노선버스 기사로 20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일 기준 2달 이상 계속 근무중인 노선버스 운전기사이다.

시는 2021년 8월 13일 김제시 홈페이지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의 노선버스 기사가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담당부서(교통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해당 기간에 제출·접수된 신청서는 2021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노선버스 기사 근무유지 등 지원 총액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이 완료된 운전 기사에 대해서 9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 개시

김제시, 집합금지 업종 최대 1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이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

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속지급 신청은 버팀목플러스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가능하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금에서 누락 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899-830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설명회로 '김제 지평선 온라인축제' 홍보

시, 이통장회의 등 참석 진행

안전방역 운영방안에 공감

김제시는 지난 20일부터 실과소 단체대상 설명회, 읍면동 이·통장회의, 사회단체장 회의 등에 참석해 찾아가는 김제지평선축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김제지평선축제 운영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사 방역조치 및 현장 대응방안, 프로그램 구성 등 안전한 방역 운영방안에 공감하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세계 전역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김제와 농특산물 비대면 관광지 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개막일 제외 축제 기간동안 벽골제 동시 체류 인원을 조정하여 개방하고 부스체험 없이 코스모스 해바라기 포토존 등 경관 위주로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 인 개막식콘서트와 체험키트 등을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하며, 안전을 최우선한 축제가 김제 및 김제농특산물을 알리는 축제로 나



김제시는 지난 20일부터 실과소 단체대상 설명회, 읍면동 이·통장회의, 사회단체장 회의 등에 참석해 찾아가는 김제지평선축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가고 있다"며 "금년 축제는 2년연속 온라인중심 축제로 대한민국 온라인 대표 축제로서 대내외로 김제지평선축제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좋은 기회이며, 개개인이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준다면 더욱 안전한 축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지는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시내권 및 인근 관광지까지 분산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집중호우대비 재해예방 총력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기상청 예보와 관련 집중호우에 의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가을장마'라고 불리는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8월 21일~27일까지 전국에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우수지자체 평판대상' 선정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 통한 우량업 유치

KTX김제역 정착·용지 현업축사 매입 등 해결

김제시(시장 박준배·사진)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상위원회/대한민국우수지방자치단체평판대상



출하는 1차 평가를 거쳐 약 20여 시민단체와 함께 신뢰도,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4개 분야에서 8개 지표를 심의해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전국의 31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평판대상 심사에서 김제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의 제안부터 인허가·공장가동까지의 전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를 통한 우량기업 유치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전국에서 드물게 고용률 상승 KTX김제역 정착과 용지 현업축사 매입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수상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장을 펼쳐온 결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로컬푸드, 송파까지 확대

군, 서울 강동구·송파구 등과 공공급식 교차공급 협약

완주군(군수 박성일)의 로컬푸드가 서울 강동구에 이어 송파구까지 확대된다. 지난 20일 완주군은 강동구, 송파구, 안동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교차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 완료했다.

완주군과 강동구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1호로 지난 2017년부터 강동구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200곳에 완주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안동시는 2019년부터 송파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교차공급 업무협약은 식재료 품목 다양화를 위한 것으로 완주군의 로컬푸드가 송파구에도 제공되고, 안동시는 강동구에 필요 식재료를 공급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와 농산물 산지 기초자치단체간 1대1 매칭을 통해 지역산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생산지는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안정된 관리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철 산지에서 배송된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다만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친환경 식재료를 다양하게 구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완주군과 매칭하고 있는 강동구, 안동시와 매칭하고 있는 송파구가 업무협약을 통해 각각의 식재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교차공급 협약으로 안정적인 관로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며 "기획생산을 통해 공급품목의 다변화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과 강동구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도농상생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강동구 직매장에도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등 연간 18억 원의 완주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